

인도 : 이영제 목사

묵	도	_____	다	같	이
기	원	_____	인	도	자
개	회	송 _____ 78장 _____	다	같	이
교	독	문 _____ 38번 _____	다	같	이
신	앙	고백 _____ 사도신경 _____	다	같	이
찬	송	_____ 265장 _____	다	같	이
기	도	_____	이	창	결집사
성	경	봉독 _____ 요1:1-13 _____	다	같	이
특	송	_____			
설	교	_____ 예수님은 누구 신가? _____	이	영	제
		(19. 나의 창조주이신 예수님)			
찬	송	_____ 455장 _____	다	같	이
헌	금	_____	다	같	이
봉	헌	기도 _____	인	도	자
광	고	_____	인	도	자
송	영	_____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와 인자하심이 _____	다	같	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축	도	_____	인	도	자

지난 설교제목 : 길, 주, 생명, 진리, 부활, 생명의 떡, 홀과 신로, 왕, 돌는 해, 신랑, 산돌, 반석, 영, 감독, 양의 문, 선한목자, 해방자, 유월절 양

주앙교회 5대 실천강령

- ◇ 24시간 쉬지 않는 릴레이 기도로 성도 자신이 성령 받고 교우와 선교사를 위해 중보기도 한다.
- ◇ 본 교우는 모두 주 예수그리스도를 바라고 예배하여,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예수의 제자가 된다.
- ◇ 모든 교회재정(십일조, 감사, 선교헌금 등)의 지출은 선교비를 최우선적으로 배정한다.
- ◇ 선교에 주력하는 교회로 선교의 기쁨을 마련하여 오는 세대에게 복음과 선교정신을 물려준다.
- ◇ 교회 내 모든 기관은 선교 체제로 조직 운영하며 자발적인 봉사과 헌신으로 운영한다.

주앙교회 24시간 기도

■ 기도 참여자 ■

매일1시간 : 오전6시(차영숙) / 오후1시(이영제)
6시(김효선) 유동(이창걸)

■ 기도 제목 ■

- 주앙교회를 위한 기도제목
24시간 릴레이 기도팀이 하루속히 완성되도록
교회의 파송선교사(김형주, 정00)님을 위해서
중국의 00교회와 리00전도사님을 위해서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앙교회 가족 모두가 주님의 축복으로 평안할 수 있도록
윤령자 강도사님과 유니아기를 위해서
- 이영제 목사님을 위한 기도제목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가 넘치도록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위해서
11월 14일 오메가 선교회 선교훈련 강의를 위해서
인도차이나선교대회(11월 24-27일 캄보디아 심리압)에 특강
- KCM을 위한 기도제목
인터넷을 전도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KCM 파송 및 협력선교사님을 위해서
멀티미디어팀이 잘 운영되도록
세계선교정보연구원 모임이 잘 활성화 되도록
- 해외선교를 위한 기도제목
세계의 한국선교사님들의 영, 육 간의 건강을 위하여
아직까지 복음을 한번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을 위하여
해외 선교를 위해 수고하는 국내의 선교단체들을 위하여

교회 소식

- ♥ 주앙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성찬예식이 있습니다).
- ♥ 다음 주일(11.16) 여성일 성도님의 세례식이 있습니다.
- ♥ 24시간 릴레이 기도팀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영제 목사가 직접 연구한 히브리서 주석자료를 기초로 강해설교 합니다.

12:1-13 그리스도의 인내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저자는 우리를 경기장으로 안내하는 것 같다. 그리스도인들은 선수가 된 영적인 경주자로 표현된다. “증인들” μαρτύρων(마르튀론) 경기장으로 말하면 “관중”을 말하는 것이다. 수많은 관중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경주하는 자는 마라톤을 연상케 한다. 달리는데 필요한 모든 무거운 것은 벗어야 한다.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가벼운 몸으로 가능한 모든 것을 벗고 뛴다. “무거운 것” ὄγκον(오그콘)은 “무거운 짐”을 말하는 것이나 여기서는 운동하지 않아 비대해진 몸을 뜻하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는 경주하는 데에 장애물처럼 나타나는 것 불필요한 것들을 가리킨다.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마라톤을 하는데 있어서 자신과의 싸움으로 “인내” ὑπομονῆς(휘포모네) “지속, 견딜”은 필수적이다. “경주를 경주하며”에 사용된 두 단어는 τρέχουμεν(트레코멘) “빨리 달린다, 달음질하다”와 ἀγῶνα(아곤아) “경기, 싸움, 시합”을 말한 것이다. 마라톤하는 자가 인내로써 빨리 달리는 승리하는 경기를 말한다.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자” ἀφορώμεντες(암호라운테스) “주의 길게 생각하자, 모든 것에서 눈을 돌려”의 현재 능동태 주격으로 예수만 바라볼 것을 권면하고 있다. 아울러 “믿음의 주”와 “온전케 하시는 이”를 동시에 수식하고 있다. “주요” ἀρχηγόν(아르케곤)은 ἀρχηγός(알케고스)에서 온 말로 “창시자”를 뜻하기도 한다. 즉 히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여럿 언급했지만 예수께서는 다른 차원의 믿음, 새로운 믿음에 대한 창시자요 그로 말미암아 믿음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음을 뜻한다. “온전케 하시는 이” τελειωτής(텔레이오테스) “완성자, 끝마치는 사람”은 이곳에서만 발견되는 단어로 저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위하여” ἀντι(안티)는 “왜냐하면, 대신에, 그래서”로 사용될 수 있다. ‘대신에’로 해석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기 전에 하늘에서 누렸던 그 영광을 버리고’가 되고 ‘위하여’로 해석하면 ‘십자가의 고난은 장차 오게될 즐거움에 비교될 수 없기 때문에’가 된다. 여기서는 후자의 것이 문맥상 더 자연스럽다. “즐거움” χαράς(카라스) “은은한 기쁨”을 뜻하는 것으로 ‘깊이 있는, 생각하면 할수록 기쁨, 샘솟는 기쁨’을 말한다.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원문의 순서대로 한다면 “생각해보아라” ἀναλογίσασθε γὰρ(가르) “...때문에”의 접속사로 이어진다. 자신에게 “거역한” ἀντιλογίαν(안틸로기안) “불순종, 부정”하는 사람들에게서 곳곳하게 견디신 예수를 생각하라고 권면한다.

4절 아직까지는 피를 흘리면서 죄와 대항하며 싸우지는 않았다는 뜻으로 아직 순교하면서 까지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이 때는 어려움이 있되 아직 순교의 때가 아님을 보여준다.



제목 : 예수님은 누구 신가?

(18. 나의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 / 본문 : 출12:13, 고전5:7-8

유월절(逾越節)의 ‘유월’이란 말은 원어의 ‘페사크’인데 영어로는 ‘패스 오버’(pass over), 즉 ‘넘어서 지나가다’는 뜻입니다. 이 절기는 니산월(유대력1월, 현재력7월) 10일에 처음 난 어린양을 골라 두었다가 14일 밤에 이것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구워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인 15일부터 1주일 동안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이 절기가 무교절입니다(출12:1,27, 레23:4-14, 민9:2-14, 신16:1-8).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한 절기처럼 계속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생겨난 것은 애굽 왕 바로가 9번째 흑암 재앙을 만나고 모세에게 양과 소 떼만 남겨 두고 다 가도 좋다는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짐승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모세를 쫓아내면서 다시 나타나면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에 마지막 재앙을 내림으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듯이 내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생축의 처음 난 것들이 죽는 무서운 장자 재앙이 임할 것을 경고 하셨습니다. 9가지 재앙은 모세를 통해서 하셨는데 이번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유월절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진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양을 잡아 피를 발랐습니다. 천사가 그것을 보고 유월(넘어감)하셨습니다.

둘째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유월절은 430년 간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해방된 감격의 날입니다. 유월절에 해방된 것이 아니고 해방된 날을 유월절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어린양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셋째 언약의 피입니다.

유월절 어린양은 가족의 수효에 따라 선택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피 흘려야 되는 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일년 된 양, 가장 힘이 좋을 때 드려야 합니다. 가장 살이 찌고 완전할 때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요 1:29)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속죄의 양으로 드러질 때는, 사도 요한에 의하면 유월절 첫 날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끝 날에는 예수그리스도 어린양의 피의 공로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느냐 아니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어린양의 피 흘림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유월절 희생양이 되신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차길



이영재 목사
주임 목사 담임
자유신교회 대표

많은 사람들은 두개의 철로를 서로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될 수 없을 것 같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를 철길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러나 보기 나름이다.
가까이서 보면 두개의 길로 보이지만 좀 멀리 떨어져서 보면
두개의 철길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이다.
즉 한길로 보이는 것이다.
실제로 그것이 도착하는 목적지도 같은 곳이다.

주안교회 파송, 협력하는 선교사

남아프리카공화국 김형주 선교사 / 필리핀 정형구 선교사
베트남 정00 선생 / 중국 리00 전도사 / 인도 초띠옥이 자매
파키스탄 정00 선교사 / 미국 김능수 전도사

• 예배시간 안내 •

주일 예배	오전 11시
주일 오후(성경 강해)	오후 2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수요 예배	오후 7:30분
금요 심야기도회	오후 9시

• 주안교회를 찾아오시는 길 •



대한예수교장로회

주안교회

JOOANG PRESBYTERIAN CHURCH

표어

말씀으로 은혜가 가득한 교회
기도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
봉사로 사랑을 나누는 교회
선교로 기쁨이 넘치는 교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
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사 40:31)

담임목사 이영제
Pastor Lee, Young Jae

435-050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73-3(제일프라자 5층 본당, 사무실 4층)

교 회 : (031)399-7706 선교회(KCM) : (031)399-7705

목사관 : (031)398-7702 핸드폰 018-213-7702

Homepage : <http://kcm.co.kr/church/> Email : webmaster@kcm.co.kr